

## 봄 환절기는 여름의 준비이다

지루하고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다. 올 겨울과 초봄도 예외없이 유행성 설사병이 많이 문제가 되었다. 여러 농장에서 발생하고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를 못하여서 질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조금씩 계절을 앞서가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찾아오면 일교차가 커지고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점점 우리나라는 사계절중 봄과 가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고 겨울과 여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3월이라고 해서 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준비하는 계절이 찾아왔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환기 방식도 손보고, 돈사의 미진한 곳들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6월부터 여름일지 몰라도 양돈장에서는 5월부터 여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농장들에서 5월에 번식성적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지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올 봄에는 미리 미리 여름 준비를 하는 농장이 되자.

### 봄은 농장의 여름 준비하기 기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번식 성적에 문제가 생기는 농장들이 많다. 필자가 관리하는 농장중에 작년 이맘 때쯤에 기억나는 곳이 있어서 간략히 적어본다. 3월말에 임신사의 중계웬과 머리말에 틀어주는 송풍기를 일제히 고치고 시험가동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 왜 이리 서두르냐고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

“일단 여름이 시작한 후에 공사를 하면 이미 모든들은 더위 스트레스를 받은 후라서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다. 또한 공사 업자들도 여름철에 매우 바빠서 여러 농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공사 업자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한가할 때에 일을 맞기는 것이 방역적으로도 안전하고 또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사를 깔끔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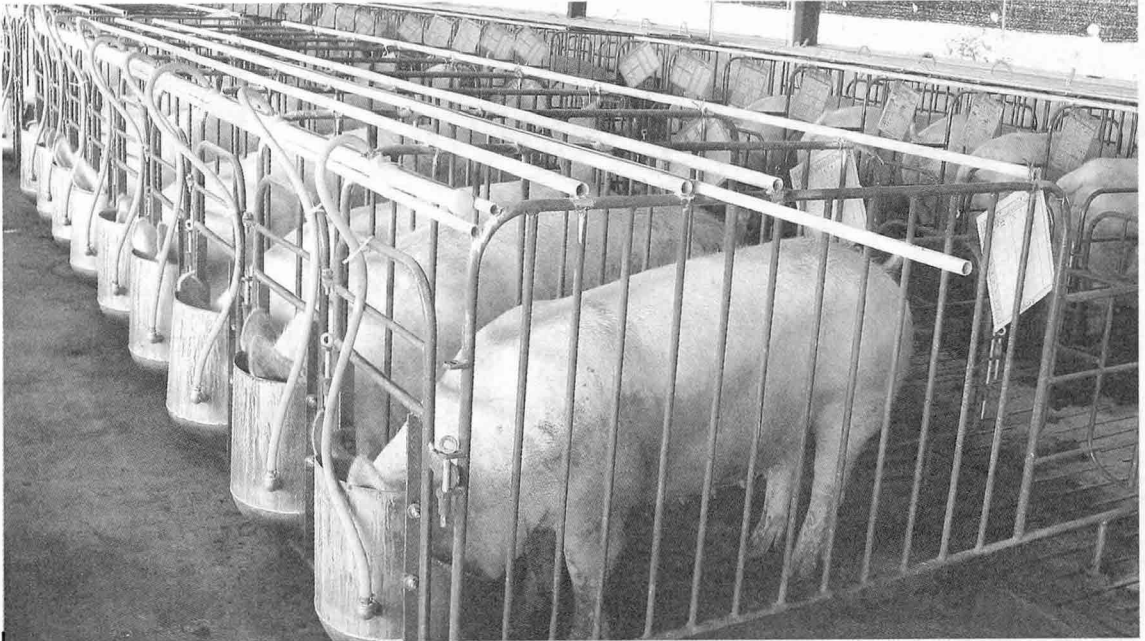
이 말을 듣고 수의사인 나조차도 이 사장님에게 감탄하였다. 정작 나는 여름 준비를 봄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농장이다. 이 농장은 양돈 밀

# 3

## 3월의 양돈관리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집 지역에 존재하면서도 이유후 출하까지 폐사율이 약 5% 전후 정도이다. 또한 번식 성적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 농장 주위의 농장들은 하나같이 폐사가 많아서 고생이지만, 유독 이 농장만큼은 성적이 계속 우수하였고 질병 문제도 크지 않았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양돈을 하시고 또한 한박자 앞서서 행동할 줄 아시는 분이니 가능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면서도 컨설팅 수의사를 고용해서 계속 농장의 관리를 맡기신다. 그 이유를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다.

“내가 생산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질병의 전문가는 아니다. 향후 질병의 컨트롤이 생산성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데, 농장에 질병 전문가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 수의사를 계약해서 고용하면 적절하게 약품을 사용하게 하여 약품비도 절감되고 주위의 질병 동향도 파악해 주고 또한 생산성에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 주는데,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지금의 생산성이 좋아서 별 문

제가 없지만, 이 생산성을 유지하는데에 수의사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 필자가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해 줄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수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좀 돌아갔는데, 미리 미리 준비하는 양돈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양돈가들이 필수로 가져야 할 생각이다.

#### 시설을 점검하고 대비하라

겨우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 두었던 각종 휠들, 기구들을 점검하고 수선해 두어야 할 계절이 또한 봄이다. ‘이제 겨우 3월인데’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겠지만, 곧 4월이고 5월부터는 여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겨울이어서 청소하지 못하였던 곳들도 청소하고 특히 휠들은 고장난 곳이 없는지, 먼지가 있어서 기능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여름에 준비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늦다. 특히 여름철 번식 성적에 문제가 있는 농장들은 늦어도 4월까지의 대비를 해서 여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절기 호흡기 문제가 많은 농장들은 돈사의 단열이나 환기 장치들을 미리 미리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고칠 부분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보통 추운 계절에 환기 점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는 단지 겨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봄 환절기까지의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다. 겨울에 문제가 많은 돈사들은 대부분 봄에도 문제가 많다. 봄 환절기를 잘 넘긴 돈사들은 대부분 여름에 피해가 적음을 경험상으로 느낀다. 여러분들의 농장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봄철의 환기 측정

이 농장에서는 환기 문제가 되어서 작년 이맘때쯤에 가스 측정을 하고 기록한 것이다. 봄에는 환기 시설과 환기 방식의 운영에 대해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 질병 문제가 심각하면 여름에 해결할 계획을 세워라

보통 추운 계절부터 봄 환절기까지 돼지들이 많이 죽는다. 소모성 질환, 설사병, PRRS등이 대표적인 질환들이다. 매해 반복되서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가을이 되어서 돼지가 죽기 시작하면 그 때어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 때 준비한다고 해서 질병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봄까지 많은 폐사가 있었다면 여름에 질병 문제를 해결해서 올 가을에는 질병 문제를 겪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여름에 해결을 하려면 미리 봄에 계획을 세우고 찬찬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모돈이 건강해지도록 준비하고, 자돈사의 질병 상황이 어떤지도 전문가를 불러서 파악하고, 안정화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준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봄과 여름이 가장 바쁘다.

질병 문제가 있었던 농장들은 봄과 여름에 준비를 마쳐야 가을에 피해가 적기 때문이다.

필자는 소모성 질환의 해결을 위해 특히 후보돈 문제와 돈사 비우기를 매우 강조하고 즐겨 사용하는데, 돈사비우기는 사실 여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여러 번 시행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노하우가 생겨서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름철에 돈사비우기를 하려면 봄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슨 일이던지 오늘 준비해서 내일 시행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질병 검사도 실시하고 모돈들의 건강도도 점검하기 위해 전문 수의사에게 한번은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양돈**